

進化論으로본 靈魂不滅(續)

具滋玉

米國 산다란드氏의 講演한바를 略譯하여 登載함

上述한바와 갓치 進化論은 도로혀 宗教를 助長하는 것이라. 만흔 사람들은 進化論은 宗教를 破壞하는 것이라고 想像하나 不然하여 卽 神의 觀念이 進化論으로 말미암아 一層雄大하여 지며 一層崇高하여 지며 神秘하게 되며 同時에 吾人의 生命이라 하는 것은 다시 一層의 사람을 엮은 光輝를 藏한것이며 다시 一層의 希望을 藏한 것임이다. 卽 天地萬有에 對하여서나 또한 我等 個人의 生命에 對하여서나 我等은 進化論이 證明되기 以前에도 큰 意味를 人生에서 차자낼 슈 잇게 되엿습니다. 卽 人生의 尊嚴인것이 進化論으로 因하여 漸々分明하게 되엿습니다. 별셔 人間生命의 尊嚴한 것이 分明하게 되엿스면 그리 하여 尊嚴한 生命이 今日까지 發達하야온 것은 天地의 大生命되는 進化의 法則이 되어 일하는 神이 큰 後見者가 되곳여 이와 갓치 絶頂의 冠이 되엿다 하는 것을 認定한다 하면 엮지 하야 우리는 이 不思議한 生命 今日까지 發達된……두렵건대 멧 億萬年 或은 멧 百億 萬年이라하는 時日을 虛費하야 여기 까지 達한바 우리의 人格 우리의 靈魂 우리의 生命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죽엄(死)과 갓치 맞쳐 버릴 것임입니다. 죽엄(死)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는 斷定할 수는 업습니다. 이와 갓치 進化論은 도로혀 宗教思想을 深奧케 하는 것임입니다.

然故로 進化論은 靈魂不滅의 信念을 破壞하는 것이 안이고 다시 新土臺를 靈魂不滅의 信念에 주는 것임입니다. 우리가 進化論을 信할 時에 그 進化의 法則이라 하는 것은 天地萬有 中에 일하고 잇는 것임입니다. 雲霧가운데에나 土壤가운데에나 사람가운데나 歷史가운데에나 一心 萬像가운데에 生命이 일하고 잇는 것이다. 이 큰 生命 이 進化의 生命 이 發達의 生命이 向上의 生命이라하는 것이 우리 個々の 魂에도 일하고 잇는 것임입니다. 個々の 生命에 일하고 잇다 할 時에도 이 個々の 心靈 個々の 生命中에 드러가 엮는 그 物件은 一層深奧하며 一層 不思議하며 一層莊嚴한 것이 되니 이 點이 卽 進化論

이 靈魂不滅에 新土臺를 提供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生命의 過去를 도라다 볼 때에는 참 遙遠한 곳으로 부터 이 生命이라 하는 것이 發達하여온 것입니다. 그 生命의 發達에는 얼마한 勞力과 얼마한 辛苦와 얼마한 手續이 들었는지 큰 勞力이며 큰 時日이며 큰 順序입니다. 그리 하여 이 生命이라 하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卽 우리가 人間이 되어 地上에 나오기에는 非常한 勞力非常한 發達進歩向上 等の 順序의 結果입니다. 그 順序 그 發達의 行程이라 하는 것은 이 地上의 生命으로써 終息하는 것인바 엇지 하여 이 큰 生命, 發展, 順序라 하는 것이 우리 死亡과 갓치 終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인지 우리는 歷史를 回顧하여 太古로 부터 이 生命의 經歷을 追想할 때에 엇지 하여 우리는 彼岸, 將來, 永遠界의 發達進歩라 하는 것을 否定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인지 또는 宇宙萬有는 무엇을 爲하여 存在하는 것인지? 宇宙萬有는 이 萬物의 靈長되는 人間을 發達케하기 爲하여 存在한 것입니다.

人間은 宇宙萬有의 神秘的 法則을 充實하여 잇는 것도 아니요. 代表하여 잇는 것도 안입니다. 天地萬有는 이것을 非常한 苦心으로 產出한 것입니다. 그리 하여 人間이라고 하는 것을 나서 나지게 된 것입니다. 然故로 宇宙가 苦心과 勢力으로 만든 人間이 水와 如히 一朝에 亡하여 업서진다 하면 何故로 宇宙 그 物件이 一體存在하여 잇는가? 宇宙 그 物件의 存在한 意味가 업서 집니다. 곳 宇宙 그 物件의 存在를 有意味하게 하기 爲하여 엇지 하던지 우리의 生命의 心靈, 靈魂의 生命 그 物件에 意義를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靈魂에 意義를 주기 爲하여 靈魂의 不滅을 밋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만일 宇宙에 何等의 目的이 업서서 宇宙 그 物件이 큰 못난 것이라고함을 信하면 곳 宇宙의 生命은 업습니다. 宇宙에 光明은 업습니다. 宇宙에 神은 업습니다. 이것이 宇宙에 큰 生命이 업다고 斷言하는 것과 갓흔 것입니다.

그런 故로 우리는 天地萬有의 中에는 理法이 잇다고 하는 것을 밋으며 聰명한 神이 存在하다고 하는 것을 밋는 것입니다. 天文學, 動物學, 植物學의 가르친 것은 곳 天地宇宙와 갓치 理智聰明의 化身된바 神의 큰 生命이 存在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만일 神이 聰明스럽고 理性이 잇다고 하면 그 不思議한 神의 큰 生命은 無意味하게 人間을 만드려 進化의 頂上까지 向上케 하고 發達케하여 一朝에 그것을 水泡와 如히 업서지게 한다 함을 밋을 수 업습니다. 今日의 進化論……基督敎的의 進化論者가 그 學說에 依支하여 더욱~神의 力を 밋으며 그 活力을 밋으며 그 살게 하는 力を 밋으며 人類의 尊嚴함을 밋으며 그것으로 좇차 그 人間의 心靈中에 잇는 生命이 永遠이 發

達할 것을 밋는 것입니다. 此進化論의 立脚地로 보면 神은 宇宙의 根本生命이요. 神은 宇宙의 根本勢力이요. 神은 宇宙의 心中的 地位며 聰明입니다. 神은 宇宙의 根本的 愛입니다. 그 愛의 神, 力의 神, 聰明의 神, 伶俐의 神, 原動力도 되고 指導力도 되고 創造力도 되는 神이 天然萬有에서 일하심을 밋는 것입니다. 進化論으로 본 바 人間이라고 하는 것은 이 不思議한 宇宙의 生命發達의 頂上이요. 發達의 冠입니다. 그 發達이 完成의 極度라 하면 이것을 認定할 수 있습니다. 進化論으로 보면 現在에 人間이 完成된 것이 아니요. 人間의 生命이 此地上의 生活에 漸々土臺를 두고 잇는 것이다. 此土地의 上에 人間이 發達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우리는 至今心靈의 土臺上에 우리들의 生命을 두고 잇는 一種의 建物인 故로 우리가 死를 迎할 時에는 그 一部分이 깨어질는지 모르나 그 建物全體가 깨어지는 것은 아입니다. 그 建物의 上部만 깨어지는 것이요. 그 혈고 썩은 部分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그 建物의 土臺는 依然히 남아습니다. 故로 우리 生命의 土臺는 依然히 남아잇서서 一次此人生에서 土臺를 始作한 우리 生命은 반다시 何處이던지 他場所에서 그 生命이 更히 發達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요. 更히 何處에서던지 向上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요. 更히 何處에서던지 完成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일은 理致에 合當한 것입니다. 進化論으로본 人生은 神이 그 圖畫冊에 筆을 執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神은 우리 人生을 筆을 執하고 그림 冊에 그림을 그리고 잇는 것입니다. 우리 人生의 半分은 神이 아직 그려 맞치지 못한것입니다. 그 中에 死가 來하여 우리 生活이 停止되는것입니다. 우리 人生의 그림이 다되지 못한 中에 停止된 것입니다. 其時에 神은 一時中止할는지 모릅니다.

一時筆을 멈추고 休息할는지 모릅니다. 畫工된 神은 決코 半分만된 畫帖을 破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차라리 神은 다시 그림붓을 잡고 半分만된 未完成의 그림에 完成할 때까지 筆을 執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입니다. 其完成한 人生은 故로 永遠의 生命입니다. 又進化論으로 見한 人生은 一種의 教育場所입니다. 우리 人生은 學校것이요. 人生의 幼稚園에 우리가 잇는 것입니다. 幼稚園에서 小學校, 中學校, 大學校를 지나 점점~無窮永遠한 우리 生命이 教育과 갖치 進步치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만일 우리 生命이 此世上과 갖치 有限하게 消滅하면 우리 教育은 幼稚園뿐이다. 누가 우리 中에 幼園教育으로만 滿足한 者가 잇겠슴닛가? 更히 小學校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中學, 大學에도 가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人生의 學校에는 限이잇서 大學以上の 學校는 업스나 此宇宙進化의 法則에 從하는 人間의 心靈이 그 靈界의 學校에 무슨 制限이 잇는지 업는지는 오직 神만 아시는 것입니다. 余가 生覺하는 進

進化論으로 見한바 人生은 神의 그 不思議한 力을 가지고 잇는 生命을 주신
것이나 그 神의 完成은 반다시 永遠의 世界에서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
이 곳 神의 經綸이오. 神의 마음입니다. 이 일을 우리로 確信케 하는 것이
進化論의 一種福音이 아님닛가 余는 이것으로써 進化論의 福音이라고 부를 임
니다. (完)